

제약기업, 생명공학약품 개발 활기

유한 · 동아 · 녹십자 · 종근당 선두 ... 2002-03년 완제신약 출시?

국내 제약기업들이 2002년 들어 첨단 생명공학 의약품 개발과 연구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신약개발조합 및 제약업계에 따르면, 유한양행은 게노믹스와 프로테오믹스 등 첨단 바이오기술에 기존 신약 개발기술을 접목한다는 방침에 따라 2002년 배란진단키트, 간염진단키트 등을 개발·출시하기로 했다.

또 유전자재조합 및 고밀도동물세포 배양기술을 응용한 암치료보조제 등에 대한 임상시험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동아제약은 이미 빈혈치료제와 성장호르몬제 등 4종의 생명공학제품을 시판하고 있는 가운데 2002년에는 유전자치료제, DNA백신 등의 연구과제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보령제약은 2001년 10월부터 인하대학교와 공동으로 차세대 핵심기술과제인 '식물세포를 이용한 유용단백질 생산기술개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유전자치료 전문벤처기업인 '월진'에 투자하기도 했다.

녹십자는 골다공증치료제(PTH), B형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만을 선택적으로 파괴하는 새로운 개념의 면역치료제(CTL), 암세포 증식에 필요한 신생혈관생성을 억제하는 항암제, 자가면역질환과 장기이식 거부반응을 억제하는 면역조절제, 유전자재조합 혈우병치료제 등을 개발 중이다.

종근당은 임상을 진행중인 유전자재조합기술 이용제품에 대한 연구를 마무리 짓고 2002년 상반기에 시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01년 국산 신약인 당뇨병성 족부궤양치료제 이지에프를 탄생시킨 대웅제약은 2002년 국내 3상임상 및 해외(독일) 2상 임상을 진행, 세계적인 제품으로 육성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시킬 계획이다.

제약업계는 인간게놈지도 완성 이후 인체 단백질과 효소, 항체 등에서 신약의 재료를 찾게 되면서 국내 제약기업들도 생명공학의약품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어 앞으로 제약기업의 연구개발은 생명공학제품에 치중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 Chemical Daily News 2002/ 01/ 21 >